

[사람+] 신부님이 버스를 몰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요!



버스를 몰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사제가 있습니다. 가톨릭 청소년 이동 쉼터 ‘서울 A지T(아지트)’ 소장 은성제 신부입니다. 서울 A지T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 인데요. 은 신부를 만나 서울 A지T와 ‘학교 밖 청소년’ 사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 A지T는 어떤 곳인가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지T’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트럭’입니다. 실제로 직접 특정 장소에 버스를 몰고 가서 어려움 혹은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움이 필요하면 주민센터, 구청 등에 연결해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청소년을 포함해 한 가정 전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대형버스 면허를 직접 취득하고,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게 버스를 개조했다고 들었습니다.

버스 면허가 있는 직원을 구하기 전에 직접 따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려면 저부터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죠. A지T를 만들기 전 다른 이동 쉼터를 많이 가봤는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느낌이 없더군요. 아이들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장소가 편해야 마음도 열린다고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아이들은 마음껏 휴대폰 충전도 하면서 노래방 기계를 사용해 노래도 부르고 TV를 통해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저희 버스에 찾아왔던 A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폭행에 시달렸죠. 가출하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A가 우리에게 도움 요청을 해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비공개 쉼터로 보냈고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족들과도 만났죠. 우울증을 앓고 있는 A의 어머니 정신과 치료도 도왔습니다. 또 폭행 가해자는 경찰과 연결해서 선도할 수 있도록 했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A의 사건처리를 도운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후속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선교의 본질인 ‘사랑의 실천’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와도 되는 ‘비밀 언덕’이 되어야 합니다. 집 나간 작은아들을 항상 기다리는 아버지(루카 15.11-32)와 같은 자비의 마음이 우리 버스의 모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이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전문 상담 봉사도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좋겠죠.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양적인 결과물보다 벼랑 끝에 있는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정서적으로도 꾸준히 지원하며, 이들이 20세 이후 청년이 되어서도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구역진 플로라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 버스 운행 시간, 장소:** 매주 목요일(17시~24시), 수요일 상산어린이공원
매주 금요일(16시~1시), 응암역 리드힐병원 앞.

*** 문의:** 02)382-5677, ajit@ajit.or.kr(코로나19로 인해 6월 중 오픈 예정, 서울A지T 홈페이지(<http://www.ajit.or.kr>)에 공지)